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두배로!
제주의 가치를 두배로!

| 일 시 : 2015년 1월 9일(금) 15:00 ~ 18:00

| 장 소 : 제주농어업인회관

| 주 책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프로그램

14:30 ~ 15:00 등 록

사회 :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5:00 ~ 15:30 (1부)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 김우남(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환영사 : 이종구(수협중앙회장)
- 환영사 :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 축 사

15:30 ~ 16:45 (2부) 주제발표

- 발 표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향가치와 중요성(윤원근 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
- 발 표 : 제주발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와 보전·관리·활용 방안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 제주해녀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유철인 제주대 교수)
- 발 표 :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방안(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발 표 : 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한 정책방향(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16:45 ~ 17:00 휴 식

17:00 ~ 18:00 (3부) 토론 및 질의 응답

- 좌 장 : 김정봉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 토론자 :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산업위원장)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장)
홍경자 (제주 해녀문화재보존회장)
양치석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
박태희 (제주도해양수산국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융복합사업처장)

18:00 ~ 폐 회



개회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 우 남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입니다.

오늘, 농어업유산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 -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두배로! 제주의 가치를 두배로!! - 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님,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농어업유산자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농업인과 해녀분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과 김정봉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님, 그리고 윤원근 한국 농어촌유산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세계 각국은 사라져가는 농어업유산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여 이를 지역 브랜드로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도 농어촌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상반기에 제주발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원 등의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0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지정·관리·지원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농식품부장관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농업유산에 대해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농어업유산의 추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해녀문화는 제주의 살아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가 경제적 논리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 해녀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논의하고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 제주밭담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제주해녀를 지정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이 향후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보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의 역사·문화·산업적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각계 전문가 분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수협중앙회장
이 종 구



존경하는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민족 고유의 문화 자산인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기까지 애써주신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윤원근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곳 제주도는 육지와 교류가 힘든 먼 바다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 고유 문화와 생활상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었고, 오늘날 전세계가 주목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낸 힘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녀는 어업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생명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운데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농촌의 발달 역시 제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다양한 농어업유산자원은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창출해 낸 다양한 전통 문화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이면에는 위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옛것은 낡고 불편하고 때로는 낯설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의 외면 속에 농어촌이 고령화 되어 전통문화 단절로 이어지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대로 이어져 온 고유의 유산들은 금새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의 문화유산들이 온전히 전승되어 보존되고, 한발 나아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포럼이 농어업유산자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전통문화가 새롭게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비롯한 가시적 성과들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길 기원하며, 우리 수협도 관심을 기울여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을미년 새해 세계유산의 섬, 제주에서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님, 그리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제를 해주실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회장님, 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님, 제주대학교 유철인 교수님,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국장님, 해양수산부 박준영 정책관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주실 수산경제연구원 김정봉 원장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UNESCO(유네스코) 세계유산 3관왕과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을 보유한 세계유산의 섬입니다.

이러한 세계유산의 섬에서 농어업유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의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본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문자원으로 제주밭담이 2014년 4월1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농업·농촌자원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제주밭담



의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제주농업 및 농촌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발담을 자손만대까지 유산으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농어업유산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럼을 계기로 제주해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어업유산자원이 발굴되고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제주지역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을미년에 가내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 발표 □

■ 발표자 : 윤 원 근 (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

■ 주 제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향가치와 중요성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지향가치와 중요성

2015.1.9

윤원근(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

주요 내용

- ▶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는 UN(FAO)기구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어업과 관련된 유산제도이다.
- ▶ GIAHS는 보존과 규제중심의 문화재 관리방식과는 달리, 활용을 통한 보전을 지향한다.
- ▶ GIAHS는 묻혀있는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가치부여를 통하여, 지역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정의

- ▶ Remarkable land use systems and landscapes which are rich in globally significant biological diversity evolving from the co-adaptation of a rural community with its environment and its needs and aspi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AO, 2002)
- ▶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FAO, 2002)

개념의 분석

- ▶ 생태시스템
- ▶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체계
- ▶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체계
- ▶ 축제, 풍습 등 문화체계
- ▶ 농림업 관련 경관
- ▶ 축산업관련 경관
- ▶ 어업관련 경관
- ▶ 수자원관련 경관

소프트웨어(내용)

하드웨어(그릇, 용기)



지정대상분야(예시)

- ▶ Rice based traditional systems
- ▶ Maize and root based agro-ecosystems
- ▶ Pastoral transhumant and nomadic systems
- ▶ Irrigation, soil and water management systems in dry lands
- ▶ Multi-layered home gardens and agro-forestry systems
- ▶ Fishing, hunting and gathering systems

지정절차

제안서 작성

• 지자체, 주민단체 등

제안서 제출

• 해당부처 승인 후 FAO 제출

서류심사

• GIAHS 학술위원회

현장 실사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 GIAHS 운영위원회(2년마다 개최, 2015년 예정)

모니터링

• 동태적 보전계획에 따른 2-3년 주기 모니터링



가치평가(지정)기준

- ▶ Food and Livelihood Security(식량과 생활의 안전)
- ▶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생물다양성과 생태계)
- ▶ Knowledge System and Adapted Technology(지식 및 기술체계)
- ▶ Culture, Value System and Social Organization(문화, 가치체계와 사회조직)
- ▶ 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경관, 토지 및 수자원의 관리)

지정현황

대륙	지정개수	비고
아프리카	10	알제리, 케냐, 모로코, 탄자니아(2) 튀니지, 기니, 마다카스카르, 말리, 서아프리카
중남미	2	칠레, 페루
중동/중앙아시아	5	이란(3), 이라크, 러시아
동남아시아	30	중국(9), 인도(10), 일본(5), 한국(2), 스리랑카(2)
유럽	5	카르파티아지역,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계	52개	25개국



지정 동향

- ▶ 2014년 12월 현재 25개국 52개 지역으로 증가
-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의 추진방향, 전략 등의 설정 및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 중국은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일본은 UN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례(1): 일본 사도섬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섬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따오기의 복원 및 방생,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농어촌공간을 만들기 위
하여 저 농약 농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어도, 수로 등을 설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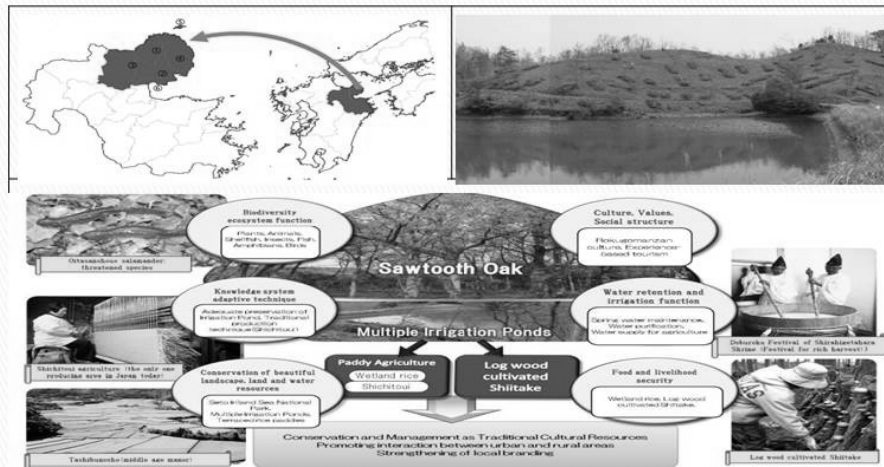
사례(2): 인디아 뱅골만

뗏목낚시는 산호, 해초 등이 서식하고 있는 뱅골만의 민감한 연안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해양생물을 수확하는 지속 가능한 어법으로서 20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사례(3):중국 DONG 자치족

벼 재배와 물고기의 양식 병행하는 오리농법
(Rice Fish Duck System)



사례(4):일본 쿠니사키 반도 우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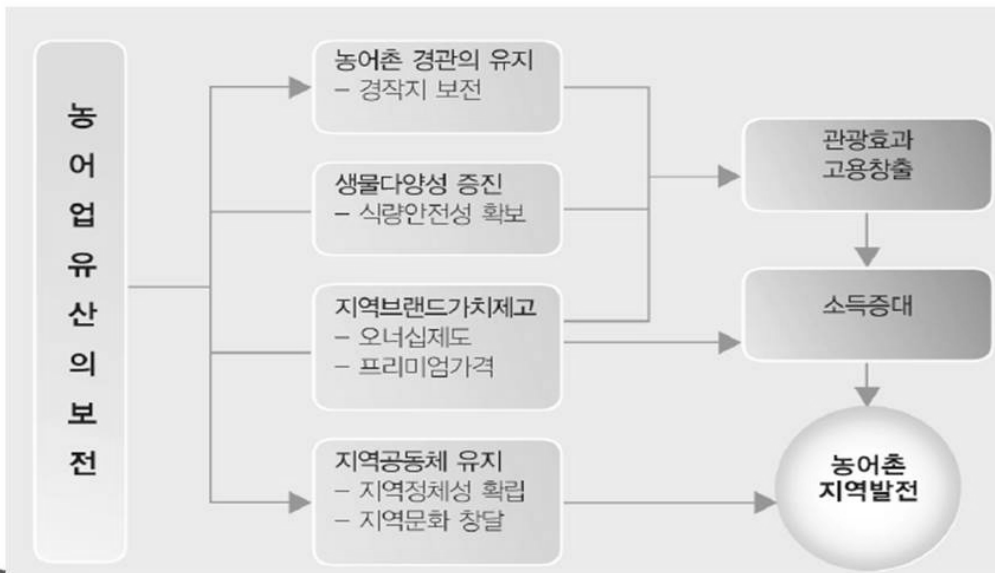
참나무 숲과 인근의 다수의 저수지들이 연계시스템을 이루며 임업과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

농어업유산제도의 중요성

- ▶ FAO가 인정하는 세계(농업)유산의 가치
 -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홍보
-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추구
 - 생물다양성, 지구온난화 등의 범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에 기여
- ▶ 한국적, 지역적인 농어촌공간(경관)의 재창조
 - 전통적인 농촌공간의 훼손과 난 개발
- ▶ 농어업 유산의 활용과 보전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 새로운 농어촌발전 시각과 모델(지붕 없는 박물관)
- ▶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를 강조
 - 지역주민이 유산발굴, 보전활용계획의 수립 및 보전활동 참여



농어업 유산과 농어촌발전



GIAHS포럼과 ERAHS

- ▶ GIAHS포럼: 매 2년마다 개최(2015, 2017)
 - 등재를 위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세계농업유산등재 제안서의 작성, 등재추진 대외활동이 필요
- ▶ ERAHS(East Asia Research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한중일 농업유산연구회의 창설(2013년 제주도, 청산도 농업유산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제안)
 - 중일한 순으로 매년 국제회의 개최를 합의함
 - 2014: 중국(xinghua), 2015: 일본(사도섬), 2016: 한국(개최지 미정)
 - 한중일 농어업유산 전문가의 연구 발표 및 교류활동

□ 제주 발표 □

■ 발표자 :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주 제 :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와
보전·관리·활용 방안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의 가치와 보전·관리·활용 방안



2015. 1.9

강 승 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돌과 바람의 섬나라, 바다위로 솟다

제주 화산섬의 탄생
돌과 바람의 섬나라 & 화산회토도양



돌밭 일구어 밭담을 쌓다!

농업의 시작과 밭담의 탄생
밭담과 농업시스템
국내외적 중요성



밭담, 제주의 소를 품다!

식량과 생계를 지켜온 밭담
밭담과 생물다양성
밭담의 농업경관



밭담과 어우러진 제주문화

제주밭담 관련 문화체계
밭담만큼 풍부한 돌문화



밭담, 제주의 미래를 열다!

제주밭담이 직면한 위협요인들
제주밭담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Story 1 | 돌과 바람의 섬나라, 바다 위로 솟다!

1-1. 제주 화산섬의 탄생

1-2. 돌과 바람의 섬나라 & 화산회토도양



Story 1 | 돌과 바람의 섬나라, 바다 위로 솟다!

1-1. 제주 화산섬의 탄생

☑ 제주섬은 수성화산활동을 통해 태어났다.

☞ 제주섬은 탄생 당시의 지형과 지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 인증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자연유산 / 세계지질공원)

☑ 이러한 탄생배경은 제주섬을 돌과 바람의 나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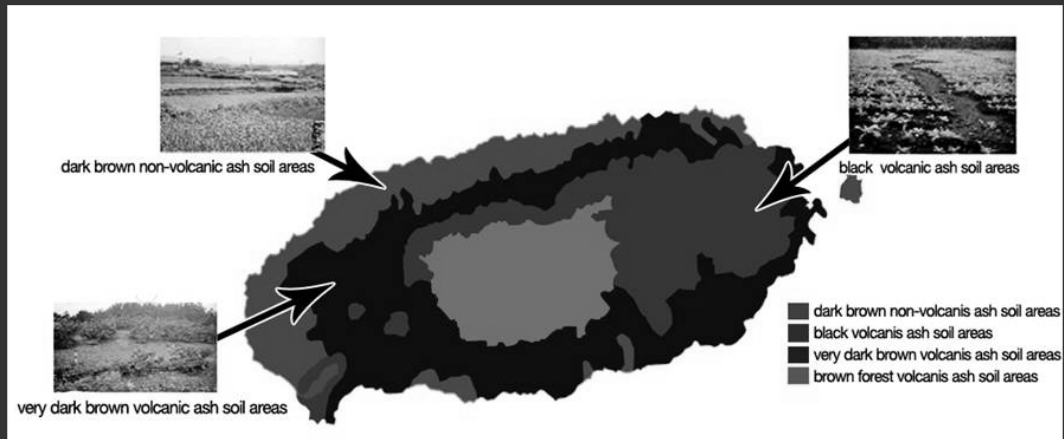
Story 1 | 돌과 바람의 섬나라, 바다 위로 솟다!

1-2. 돌과 바람의 섬나라 & 화산회토 토양

☑ 섬 전체의 77%, 경지의 60%가 화산회토 토양

☞ 땅을 일구면 돌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며 그 때문에 밭농사가 99.9%를 차지한다.

→ 이 화산회토 토양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느냐가 농사의 관건이었다.



5

Story 1 | 돌과 바람의 섬나라, 바다 위로 솟다!

☑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왜 밭농사가 지배적인가?

☞ 화산회토토양은 투수성이 매우 높다.

☞ 경지의 평균 토양 깊이가 18.3cm (최저 7cm, 최고 35cm)로 매우 얇다.

☞ 대부분의 토양은 자갈함량이 많으며 40%에 이르기도 한다.



[작지왓]



[빌레왓]



[오래밭]

화산섬 제주의 대부분의 경지는 돌밭이다. 자갈이 많은 경지를 '작지왓'이라 부르며, 암반이 많은 곳은 '빌레왓'이라 부른다.

6



Story 2 | 돌밭 일구어밭담을 쌓다!

- 2-1. 농업의 시작과 밭담의 탄생
- 2-2. 밭담과 농업 시스템
- 2-3. 국내외적 중요성



Story 2 | 돌밭 일구어밭담을 쌓다!

2-1. 농업의 시작과 밭담의 탄생

- ☑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제주에서 농업은 1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밭담은 개간과 농경과정에서 캐낸 돌을 이용하여 바람과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 쌓아졌다.
 - ☞ 1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길고 긴 검은색의 현무암 밭담이 만들어졌다.
 - ☞ 하늘에서 보면 밭담은 마치 흑룡처럼 보이기 때문에 '흑룡만리'라 불린다.
- ☑ 밭담은 제주농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어떠한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머들



• 제주밭담의 총 길이
- 22,108km

• 제주밭담의 유형

← 외담 잣담 →
↙ 절담 ↘ 잡곡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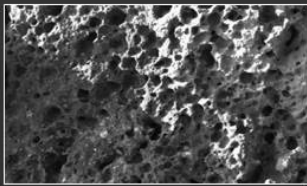


Story 2 | 돌밭 일구어밭담을 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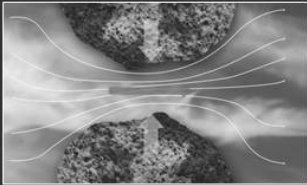
■ 제주밭담의 구조적 특성

- ☑ 대부분 모서리가 비교적 둥근 다공질의 현무암
- ☑ 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많은 바람구멍
- ☑ 두 개의 밑돌에 하나의 윗돌을 올려놓아 형성되는 안정적인 구조

천 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제주밭담!



[다공질 현무암]



[밭담 사이를 지나는 바람의 속도와 마찰력의 관계]



돌들이 받는 마찰력은 돌의 모양새와 바람구멍의 파풍효과(바람을 걸러내는 효과)에 달려있다.

9

Story 2 | 돌밭 일구어밭담을 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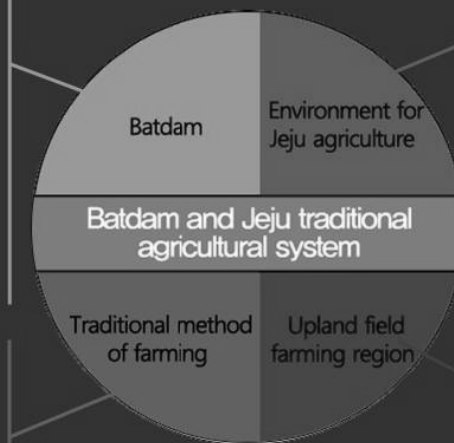
2-2. 밭담과 농업시스템

■ 제주밭담의 기능과 전통농업시스템

- ☑ 제주밭담은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농업시스템이다.
 - 2014년 4월 1일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 세계자연유산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은 인문분야 세계적 첫 인증 쾌거!!

- 파풍효과
- 농경지 경계
- 토양유실 방지
- 토양 보습 및 경작지 보존
- 마소 침입 방지
- 생물종 보존
- 농업문화의 보존
- 농업보호, 생산량 증대

- 밭담 쌓기
- 밭 밝기(진압농법)
- 해산물, 돛거름 등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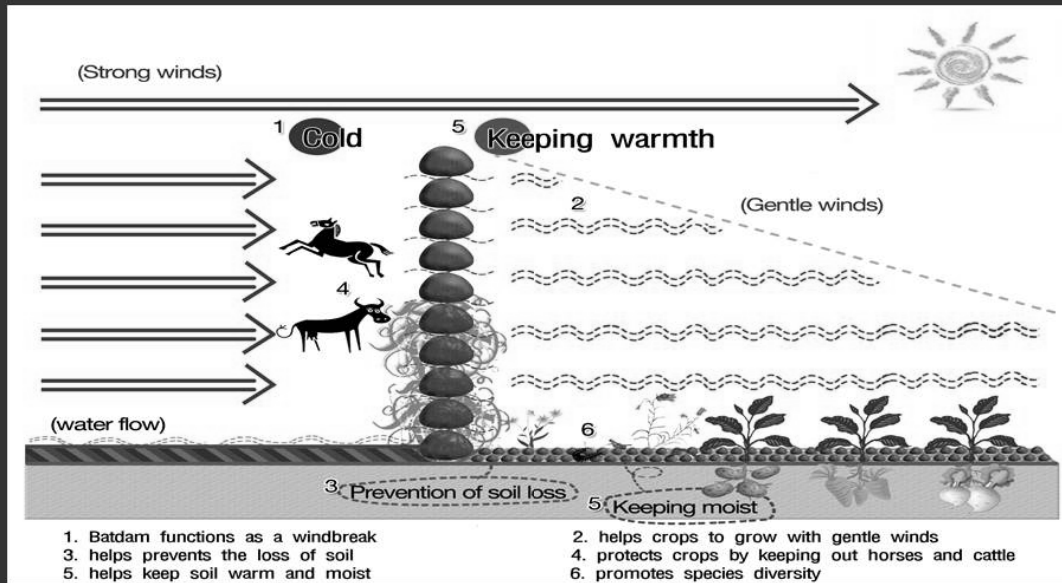
- 화산회토토양
- 강한 바람
- 많은 강수량

- 밭농사 99.9%
- 논농사 0.1%



Story 2 | 돌밭 일구어밭담을 쌓다!

제주밭담 & 토양 & 바람의 상관관계



11

Story 2 | 돌밭 일구어밭담을 쌓다!

2-3. 국내외적 중요성

한반도 육지부와와의 차별성

- ☞ 지질적 차이로 인하여 제주에서는 논농사가 불가능하다.
- ☞ 제주는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고 강한 바람이 분다.

세계 유사 문화와의 차별성

▶ 유럽 보카주경관과의 비교

제주밭담

-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 긴 세월을 걸쳐 만들어짐.
- 돌로만 만들어짐.
- 전적으로 밭농사 중심

보카주 경관

- 집단적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단기간에 형성
- 나무, 돌, 판자 등 다양한 재료 사용
- 목축을 위한 초지재배나 소의 방목 등 혼합농업



제주밭담



아일랜드의 보카주 경관



프랑스의 보카주 경관

12



Story 3 | 밭담, 제주의 소를 품다!

3-1. 식량과 생계를 지켜온 밭담

- ☑ 제주도의 농림어업 비중은 18%로 산업구조상 2순위임.
- ☑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는 19.2%로 우리나라의 평균 6.0%의 세 배에 달함.
- ☑ 토지는 밭농사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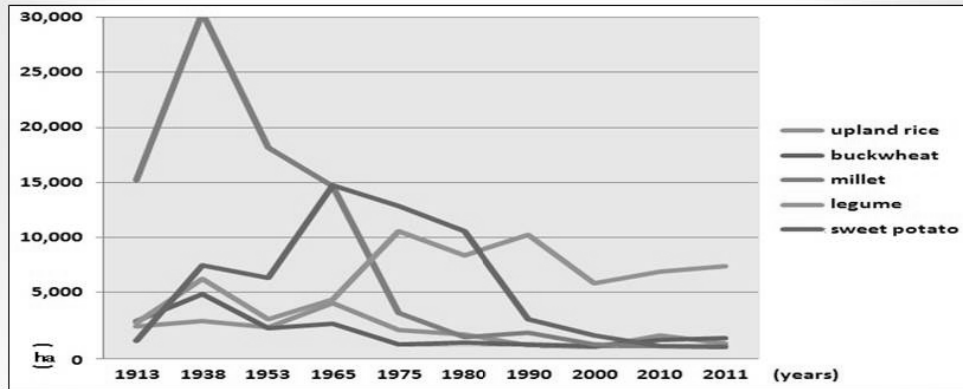
작물별 생산량

작물	생산량(2011)
식량작물	66,632 M/T → 감자 48,900, 콩 7,442, 보리 4,802, 고구마 1,887 등
채소작물	695,809 M/T → 무 307,109, 양배추 112,087, 당근 61,104, 양파 62,333, 마늘c 45,631 등
특용작물	4,810 M/T → 참깨 448, 녹차 124, 유채 140, 땅콩 258, 약용작물 2,532 등
화훼	29,496,000 송이 → 백합 17,036,000, 국화 3,578,000, 거베라 1,670,000 등
감귤	588,000 M/T



Story 3 | 발담, 제주의 오늘을 품다!

전통작물의 연차별 경지면적(1913-2011)



15

Story 3 | 발담, 제주의 오늘을 품다!

토양특성과 발담 높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재배작물이 차이를 보임.

☞ 제주도 경작토는 비화산회토 40.5%, 화산회토 59.5%임.

☞ 제주 발작물이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감귤 99%, 당근 70%, 가을감자 40%, 무 40%, 브로콜리 70%, 양배추 4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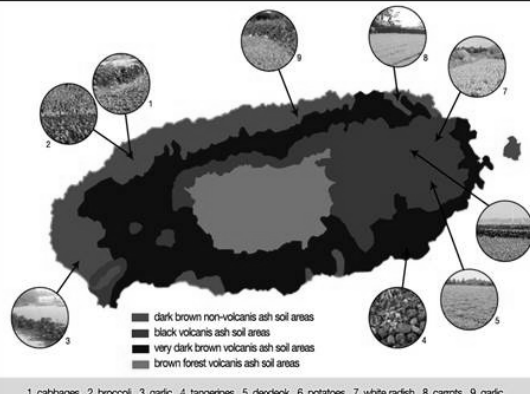
토양특성에 따른 지역별 주요 작물



마늘 - 비화산회토도양



무 - 화산회토도양



당근 - 화산회토도양



당근 등 - 모래도양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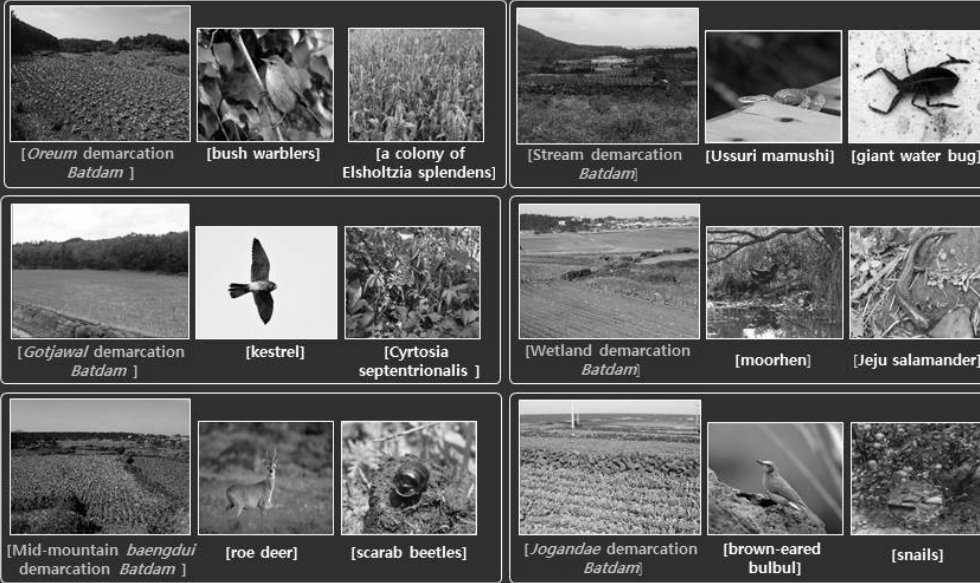


Story 3 | 밭담, 제주의 소를 품다!

3-2. 밭담과 생물다양성

☑ 제주섬은 지형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동식물상을 보여줌.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 밭담과 생물다양성



Story 3 | 밭담, 제주의 소를 품다!

3-3. 밭담의 농업경관

☑ 제주의 독특한 문화경관은 화산섬 제주만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땅의 형상에서 기인함.

☑ 제주밭담은 서로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형과 어울리게 조성되어 있어 제주의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연출

섬 전체를 수놓은 밭담은 하나의 모자이크 예술품!





제주밭담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19

Story 4 | 밭담과 어우러진 제주문화

4-1. 제주밭담 관련 문화체계

4-2. 밭담만큼 풍부한 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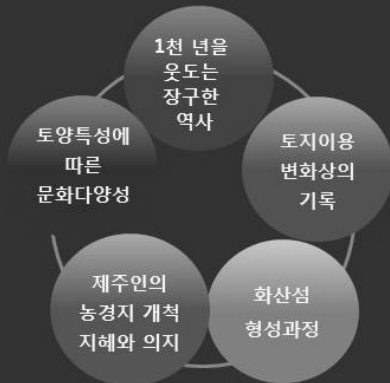
Story 4 | 밭담과 어수러진 제주문화

4-1. 제주밭담 관련 문화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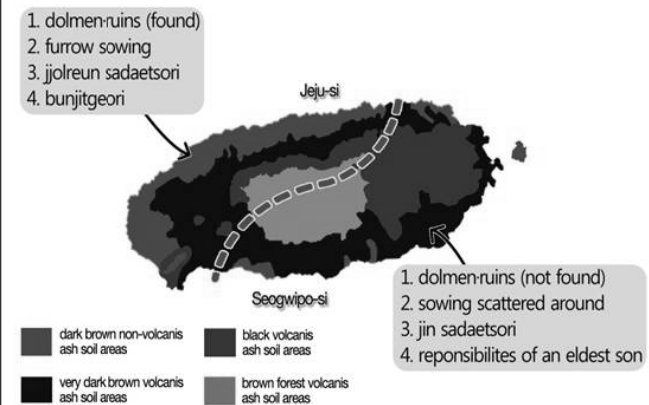
▣ 밭담의 사회문화적 의미

- ⇒ 밭담은 1천 년을 훨씬 웃도는 역사성과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유산
- ⇒ 밭담은 고도와 지역에 따른 토양특성별 문화적 다양성과 주민들의 삶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밭담의 사회문화적 의미



토양특성에 따른 문화유형 차별화 사례



21

Story 4 | 밭담과 어수러진 제주문화

4-2. 밭담만큼 풍부한 돌문화

▣ 주거문화와 제주의 돌문화



[전통초가의 울림과 울랫담]

[봄덕]



[우렁뿔]

[정낭]

[맷돌]

22



Story 5 | 발담, 제주의 미래를 열다!

5-1. 발담이 직면한 위협 요인들

5-2. 제주발담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Story 5 | 발담, 제주의 미래를 열다!

5-1. 발담이 직면한 위협요인들

- ☑ 농업의 기계화
- ☑ 과학영농의 도입과 재배작물의 변화
- ☑ 도시 확산과 도로 건설에 따른 발담 훼손 증가
- ☑ 제주 감귤산업의 정착
- ☑ 돌 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른 원형 훼손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발담은 다시 쌓여졌고 그에 따라 원형이 훼손되었다.



경지정리사업 후 낮아진 발담 모습. 하지만 농작물 해수 피해 등으로 문제 발생

Story 5 | 발담, 제주의 미래를 열다!

5-2.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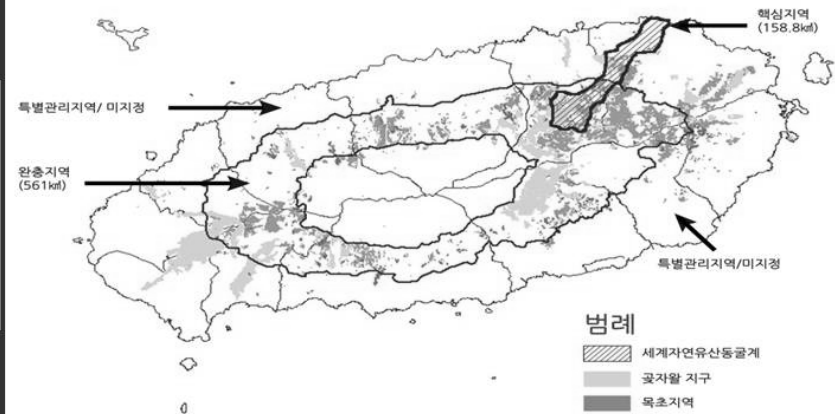
제주밭담경관보전지역 지정

- 핵심지역(안):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포함한 사방 5km 범위(지구 내 5개 마을 경계로 제한)
- 완충지역(안): 중간간 지역(561 km²)
- 특별관리지역(안): 해안~중간간지대 발달 경관 우수한 군락지(향후 단계적으로 지정)

발담 경관 보존지역
권역구분

발담 관리지표

- ① 원형성
 - ② 경관가치
 - ③ 고유성
 - ④ 보전·활용 가능성
 - ⑤ 관리주체 형성
- 각 지표별 3등급 척도로
총 15등급으로 가치평가



25

Story 5 | 발담, 제주의 미래를 열다!

5-2. 제주발담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 단계별 종합계획(안)



26

□ 주 제 발 표 □

Ⅰ 발표자 : 유 철 인 (제주대 교수)

Ⅰ 주 제 : 제주해녀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어업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의 가치

유 철 인 (제주대학교 교수)

해녀(海女)는 산소 공급장치 없이 무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잠녀(潛女)나 잠수(潛嫂)라고도 부른다. 제주도내 100개 마을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해녀는 현재 4,500여명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일부가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아무런 장비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나, 직업인으로서 잠수하는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해안마을과 몇몇 섬에도 해녀가 있지만, 제주도가 해녀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다른 지역의 물질작업은 그곳으로 바깥물질을 나갔던 제주해녀가 전승시켜준 것이다. 한반도 다른 지역의 해녀는 그곳에 정착한 제주해녀와 그 지방 출신의 해녀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 한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주해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조오련이라는 수영선수, 수중발레 한국대표 선수 등 세 명이 출연하였다.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오래 버티기 시합을 하였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 대부분의 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제주사람들까지도 제주해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약 1분 만에,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물속에서 나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1회당 잠수 시간은 해녀의 중요한 능력이 아니다. 반복적인 물질 작업의 결과로 언제 물위로 떠올라야 할 수 있는지 해녀의 몸이 스스로 알고 있다. 물질은 삶과 죽음이 찰나에 갈라지는 일이므로, 해녀들은 물밑에서 오래 머물면서 많이 채취하겠다는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아야 한다.



1. 식량 확보 측면

한국의 「수산업법 시행령」은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산소공급 장치 없이 보통 10미터 정도 깊이의 바다 속으로 약 1분간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한다. 현재 제주해녀는 하루에 여름철에는 6-7 시간, 겨울철에는 4-5 시간, 연간 90일 정도 물질작업을 한다.

전복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산란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전복을 잡을 수가 없다. 소라의 금채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이다. 여름 동안 금채 하였던 소라를 10월부터 3월(우도) 혹은 5월(김녕리)까지 잡기 때문에 현재 제주해녀가 가장 많이 채취하는 해산물이 소라이다.

제주도의 어업 종사자 중 해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를 차지한다. 해녀 인구는 1965년 2만 3천여 명에서 1975년 8천 4백여 명으로 10년간 약 3분의 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주해녀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어업종사자 중 해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제주해녀의 수가 가장 많았던 1965년에는 도내 어업종사자 중 77%가 해녀였다. 제주해녀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던 1970년대에는 도내 어업종사자 중 해녀의 비율이 41%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2000년 이후에도 해녀의 비율은 계속해서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구조면에서 보면,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내 어업활동의 주가 해녀의 물질작업인 셈이다.

2. 생물다양성(생태적) 측면

제주해녀의 물질작업은 자연친화적인 채집기술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질은 체력과 정신력, 즉 신체의 자기통제 능력과 물건을 많이 채취하겠다는 욕심 사이를 잘 조정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다.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이 채취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줄어든다.

제주도내 100개 마을어촌계는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마을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을 어촌계는 채취기, 잠수작업 시간,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를 규정하



고, 물질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통제한다.

마을 어촌계 내에는 제주해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잠수회가 있다. 어촌계가 결성되기 전에는 물질을 하는 마을사람이면 누구나 잠수회원이 되었지만, 어촌계가 결성된 이후에는 한 가구당 한 사람에게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잠수회의 회의를 통해 제주해녀들은 마을어장에서 물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바다 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고 잡초를 베는 <개닭이> 혹은 <바당풀캐기>(바다풀캐기)를 한다. 이는 채취하려는 해초나 조개류의 먹이가 되는 해초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소라나 전복의 종묘를 마을어장에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제주해녀의 의무사항의 하나이다. 제주해녀는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잘 보여준다.

3. 전통어법관련 기술 및 지식 측면: 물질

전복, 소라, 성게 따위는 자맥질할 때마다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 하는 물질을 <헛될 수 있는 물질>이란 뜻에 <헛물> 또는 <헛물질>이라 일컫는다. 헛물질을 할 때 물건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밭의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자맥질을 <헛숨>이라고 한다.¹⁾ 자맥질을 한대를 제주도 말로는 <숨빈다>고 한다.

제주해녀들은 바다 속의 암초와 해산물의 서식처를 포함하는 바다에 대한 인지적 지도가 있다. 또한 제주해녀는 조류와 바람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도와 지식은 오랫동안 물질을 반복한 경험으로 습득된다.

물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해녀는 <바다밭>에 대한 지식과 몸의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기술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무슨 바람이 분다, 어느 쪽으로 물이 흐른다, 어디에서 작업해야 한다 등 물질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해녀들로부터 얻어듣는 이야기와 자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녀들은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술과 조류와 바람에 따른 기술을 익혀 가는

1) 고광민, 1996, “해녀기술”, 『제주의 해녀』, 제주도, 72쪽.



것이다. 한 지역의 바다에서 물질 기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시집을 가거나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의 바다에서 물질하려면, 해녀들은 새로운 바다에 대한 지식과 바뀐 바닷속 환경에 대한 적응 기술을 다시 익혀야 한다.

사냥과 어로 작업이 그러하듯이, 물질에 필요한 필수 지식은 명시적으로 배울 수 없다. 바닷가 양지의 노천 탈의장(露天脫衣場)인 불턱이나 현대식 탈의장에서 알아서 눈치껏 배우는 것이다. 그 날의 물질에 대한 경험담을 서로 나눔으로써 바닷속 여와 해산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다. 물질경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해녀들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배우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물질을 하기 전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해녀탈의장에서 초보해녀들은 상군 해녀들로부터 물질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녀로서의 의무와 동료에 대한 배려를 배운다.

물질은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물질 솜씨는 오랜 경험이 키워주는 것이다. 폐활량이나 찬물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신체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운 것이다. 물질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은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몸 기술>(live-ware)이라 할 수 있다. 해녀들은 체력과 신체의 통제능력을 갖고 닦아야 하고, <바다밭>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하며, 지식과 몸의 움직임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해녀들은 잠수 기술에 따라 자신들을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나눈다. 상군 해녀는 오랜 기간 물질을 하여 물질기량이 뛰어나며, 암초와 해산물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날씨에 따라 물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일기예보보다는 물질 경력이 오래된 상군해녀의 말을 듣는다.

4.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

제주해녀들은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반복적인 물질을 통해 해녀가 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해녀가 가장 많았던 1960년대, 해안마을의 소녀들이 수심이 낮은 ‘애기바당’(아기 바다)에서 물질을 배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질 전후에 옷을 갈아입고, 물질 도중에 불을 켜던 ‘불턱’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녀가 되었다. 이 시절에는 대개 열일곱 살 전후에 해녀가 되었다.



제주사람들 중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주해녀는 제주사람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친 파도에 테왁 하나를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있는 제주해녀의 모습은 제주사람들의 도전정신을 상징한다. 제주도의 척박한 화산토양 탓에 제주해녀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해녀들은 일정 구역의 바다에서 공동물질을 하여 거기서 나온 수입을 마을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바당’(학교 바다)에서 나온 수입으로 학교를 건립한 마을도 있다. 이는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을 보여준다.

1970년대 이후부터 해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애과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마을어촌계가 해녀들이 일하는 마을어장의 입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녀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한다. 대개 결혼을 한 후 해녀가 되었다. 해녀가 되면, 어촌계 산하 해녀들의 자발적 조직인 잠수회(潛嫂會)에 가입된다.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잠수회>(일부지역에서는 <해녀회> 또는 <부인회>라고도 한다)는 물질을 하는 제주해녀들의 조직으로 생산 공동체이며 회의 기구이다. 관행으로 제주해녀는 자신의 마을 바다에 한하여 입어할 수 있다는 조항이 1975년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성문화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어촌계원 위주의 제주해녀 집단으로 재편되었다. 우도(牛島)처럼 마을에 따라서는 불문율로 지켜지던 잠수회칙이 마을의 시행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제주해녀들의 속담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다. 물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이다. 제주해녀들은 매해 봄이 되면 바다의 여신인 ‘요왕할머니’(용왕할머니)에게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무속의례인 ‘잠수굿’을 지낸다. 잠수굿에서 해녀들은 요왕할머니의 자손이 되며,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해녀들은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한다. 잠수굿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안가에 씨를 뿌리며, 해산물을 많이 채취해 달라고 기원한다.

잠수굿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잠수들의 해상 무사고를 기원하는 것이다. 둘째,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셋째, 잠수굿은 잠수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잠수굿은 잠수의 의식세계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경관적 가치 측면

제주해녀들은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고무옷(잠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1980년경부터 들어선 현대적인 탈의장은 물질이 시작되는 해안가에 있는 불턱이나 불턱 근처에 세워졌기 때문에 불턱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겨울철 물질을 시작하기 전에 불을 쬌기 위해 불턱을 사용하는 마을도 있다.

돌담을 에워싼 후 땀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던 불턱은 주로 제주도 동쪽 해안에 남아 있다. 구좌읍 하도리, 성산읍 고성·신양리, 성산읍 신평리 등에서는 지금도 불턱을 사용하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와 신양리는 행정구역으로는 2개의 마을이나, 하나의 어촌계에 속해 있다. 신양에는 현대식 탈의장이 4개 있는데, 현재 해녀식당과 탈의장이 있는 곳에 남아있는 <오등애> 불턱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불턱이 있다. 제주도 서쪽 해안에 남아있는 불턱으로는 제주도의 부속섬인 비양도의 <한섬들이> 불턱이 있다.²⁾

불턱이 남아있는 제주도 동쪽 해안 마을들은 마을어장의 해안선이 길어서 예전부터 여러 곳에 불턱을 만들어 사용했던 곳이다. 1990년대 말까지 성산읍 온평리에서도 현대식 탈의장과 함께 불턱을 사용하였다. 물살에 따라 물에 들어가는 자리가 변하기는 하지만, 물질기량에 따라서도 주로 물에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온평리에서는 상·중·하군이 각각 다른 불턱을 사용하여, <상군 불턱>, <중군 불턱>, <하군 불턱>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³⁾

6. 제주해녀의 보전 및 관리방안

제주해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濟州道)는 제주해녀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현직 해녀들에게 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어장 자원조성

2)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3) 유철인, 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97~117, 108쪽.



회복사업과 신규해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가 2011년에 구성되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 회복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소라나 전복의 종묘를 육성하여 마을어촌계에 공급해주고, 잠수복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마을어촌계와 협의하여 신규해녀 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제주도가 신규해녀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주해녀들 스스로 하루 작업시간과 연간 물질작업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녀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물질소득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제주해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로 개발될 때, 새로운 제주해녀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제주해녀문화의 일부는 제주도 차원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제주해녀들이 해산물을 잡을 장소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갈 때 부르던 ‘해녀노래’는 1971년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물옷과 물질도구가 도 지정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2007년부터 제주도는 제주해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해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람객들이 제주해녀문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주도는 해녀박물관을 2006년 건립하였다.

현재 제주도의 몇몇 마을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물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녀의 자율적인 조직인 마을 잠수회가 물질시범과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를 주관하고 있다. 해녀의 생업이 관광자원화가 되면 그 이익이 해녀공동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마을 잠수회의 자율적인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해녀의 생업과 물질시범은 균형있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제주해녀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녀복인 물옷을 입었던 시절의 제주해녀문화를 주로 기록하였다. 제주해녀들은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고무옷(잠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고무옷을 입은 이후로는 물질을 비롯한 제주해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어업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다어장의 보호, 진료비 지원, 신규해녀 양성 등은 제주해녀를 보전하는데 직접 활용될 것이며, 연구자료, 유물자료, 아카이브 자료 등의 성과물은 어업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의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데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민, 1996, “해녀기술,” 『제주의 해녀』, 제주도.

유철인, 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한국문화인류학회.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해녀박물관.

□ 주제 발표 □

■ 발표자 : 김 현 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주 제 :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방안



목 차

- 01 농업유산 제도의 도입 및 추진경과
- 02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 03 향후 추진계획



01 농업유산 제도의 도입 및 추진경과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가 농업유산제도 도입배경

- 농촌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농업의 기계화,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전통유산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어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함



- 전통양식이 변형된 밭담 -



- 휴경지화된 구들장 논 -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나 농업유산제도 추진 경과

- 농업 유산 보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유산제도 도입방안 마련(2012.3.30)
- 농업유산을 효과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고시 제정(2012.12.6)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13.1.25)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14.6.10)
- 국가농업유산 지정 근거마련을 위한 입법화 추진
 - 김우남위원장 대표 발의로 ‘농어업인 삶의질 특별법’ 개정 진행
 - * 국회 법사위 계류 중, 15년 초 개정 예정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 #### 다
- 2013년 시도에서 신청한 64개소 중 심의를 통해 2개소 지정 (2013.1.25)
 - “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 제주 밭담

- 지정범위 : 제주도 전역
- 주요특징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22,108km)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 청산도 구들장논

- 지정범위 : 완도군 청산도 전역
- 주요특징 :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 바닥에 설치된 논(5ha)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 라 2014년 시도에서 신청한 18개소 중 심의를 거쳐 2개소 지정(2014.6.10)
-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 구례 산수유농업

- 지정범위 : 구례군 산동면 일대 (228ha)
- 주요특징 : 생계를 위해 재배한 산수유와 돌담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 전통문화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 담양 대나무밭

- 지정범위 : 담양군 삼다리, 향교리 일원 (36.2ha)
- 주요특징 : 대표적 대나무산지로, 농경지 주변에 식재되어 생물 다양성 및 경관 형성



01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014.4.1)

- “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일 자	주 진 사 항
‘13.01.21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13.05.10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안서 FAO 제출
‘13.06.03~06.06	FAO GIAHS 실사단 현지조사 실시
’ 14.1월~2월	FAO GIAHS 집행위원회 최종심의
‘14.04.01	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확정
‘14.04.04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



02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02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가 농업유산 활용사례(일본)

세계중요농업유산 상표제작 활용

- 세계농업유산 로고는 지역농산물 중 상위2%에 부착
- 농업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개발 추진



주민참여형 계단식논 오너제도 운영

- 도시민을 계단식 논 오너회원으로 모집하여 노동력 및 농산물 판로확보 (회비 3만엔 /년)



유산자원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운영

- NPO, 지자체, 지역주민 참여
- 200여개 유산자원을 활용한 지붕없는 박물관 운영





02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나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개요

-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농법 등 전통문화가 지닌 농촌 고유의 자원을 발굴·관리·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
-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15억원 지원
 - 사업기간 : 3년간
 - 지원한도 : 국고보조 70%(1,050백만원), 지방비보조 30%(450백만원)
- 사업 추진 체계



02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 주요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세부항목(예시)
유산정비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 등
	자료조사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 경관, 생태 등)
환경개선	환경정비	경관 조성, 폐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안내간판, 휴게소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등



02

농업유산 활용 정책

◆ 농촌 다원적자원활용사업 사례(제주 발담)

계획 수립

- 핵심 자원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 보전관리 및 활용공간조성 실시설계
- 핵심지역 실측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환경 개선

- 발담 복원 정비(탐방코스 조성)
- 체험 테마공원(발담 체험)
- 전망대 설치(포토존, 조망)



가치 제고

- 제주 돌문화아카데미 운영
- 발담 장인 발굴·지정
- 제주 돌문화 축제



02

농업유산 활용 정책

◆ 농촌 다원적자원활용사업 사례(청산도 구들장논)

계획 수립

- 기초자료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 보전관리 및 활용공간조성 실시설계
- 지표 및 자원조사



환경 개선

- 체험장 정비(구들장논 박물관 조성)
- 탐방로 정비(안내판, 경관명소 조성)
- 자원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체계 마련



가치 제고

- 농업생산 활성 농산물 브랜드 사업
- 구들장 오너제도 운영
-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구성 운영지원





03

향후 추진계획

가 국가농업유산 지정의 법제화 완료

- 농어업인 삶의질 특별법 개정(국회 법사위 계류 중)
 - 국가중요 농업·어업유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 농어업인 삶의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8월까지)
 - 세부 지정기준, 지정절차, 예산지원 방안 등
- 농업유산 지정 및 관리요령(고시)개정 (~9월까지)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농업유산 모니터링 등

03

향후 추진계획

나 국가농업유산 확대 및 상호연계로 활용방안 마련

-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19년까지 14개소
 - 15년도 국가농업유산 주가지정 : 2월말까지 완료
- 농업유산 지정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상호 발전방안 공유
 - 유산자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호 정보 교류
- 농업유산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화 추진
 - 지역브랜드 및 공동브랜드를 통해 유산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 유산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에코뮤지엄 도입방안 검토

□ 주제 발표 □

■ 발표자 : 박 준 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 주 제 : 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한 정책방향



목 차

- I 어업유산
- II 어업유산 지정제도
- III 어업유산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 IV 사업추진 전략
- V 향후 추진계획
- VI 기대효과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I 어업유산

I . 어업유산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태안 독살 어업



신안 태평염전



남해 죽방렴 어업



진도 갯샘



장흥 개매기



I . 어업유산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제주 해녀

I . 어업유산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어
업
유
산
개
념

-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경험 등의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 어업활동 등 모든 산물

어업유산을 보전·관리하여 후대에 물려 이를 활용

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사업 필요





II 어업유산 지정제도

II . 어업유산 지정제도

제 토 목 적

- 어촌 및 어업유산을 지정·보존하고 이를 어촌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어촌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제고 기여

지 정 대 상

- 전통 어업활동 경험 등의 결과로 발현된 모든 산물·경관 지정 관리
 - * 경관, 시설물의 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정 시 마을과의 연계성 고려
 - * 초기 어업 유산만을 대상으로 하되, 향후 어촌 및 농어촌으로 확대

구 분	시스템(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비 고
어업유산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기능 - 경관, 갯벌, 바다 특성 - 식량, 생계안전, 공동체 자식계기기술	어업, 수산활동 및 갯벌이용과 관련된 경관 및 시설물, 장소	1차 시행
어촌유산	-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식 - 고유 부존자원의 활용 및 기술	주민 삶과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적·지방적인 마을 공간과 공간요소	향후 추진



II . 어업유산 지정제도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해외 제도 현황



〈FAO〉



〈EU〉



〈유럽농촌문화유산가이드〉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운영
- EU는 유럽농촌문화유산가이드를 제정, 농어촌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하는 개발 계획 중요성과 원리 규정
- 일본은 고유 주민생활 및 지역풍토에 의해서 형성된 독특한 경관을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보호와 지자체별 자연경관 보전조례 마련·운영
- 영국·독일 등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 운영

II . 어업유산 지정제도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국내 어업유산 관리현황

- 바다, 해안, 강, 어업, 생태경관 등의 어업유산은 농업분야와 다른 특수성 지님
- 현재 어업유산 지정심의 대상 6곳이나 지정된 곳은 없음
 - * 독살(태안), 갯벌·염전(신안), 개매기 어장(장흥), 갯섬(진도), 죽방렴(남해), 돌 염전·해녀(제주)
- 체계적인 관리기반 부재 → 어업유산 훼손, 방치, 멸실 등

체계적 관리제도 필요

전통 어업 및 어촌자원 발굴·보전·전승을 위한 어업유산 제도 도입

- 보전가치 있는 어업유산 발굴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적극적 활용
 - 소중한 전통어업유산 보전, 어촌 관광·경제 활성화 촉진 기여



III 어업유산 관리 개선방안

III . 어업유산 관리 개선방안



어업·어촌자원에 대한 재인식과 관리 방향 전환 필요

현재(As-Is)

<어업유산 방치>

- 어촌유산 가치 저평가
- 어업형태 변화에 따른 멸실
- 과거 비효율적 유물 취급

<외생적 보존>

-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
-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활용

<어업유산 정책 부재>

- 수산업 위주의 양적 성장 정책
- 지역 어업유산 발굴 정책 부재

미래(To-be)

<어업유산의 활용이 최선의 보존>

- 어촌유산 보존을 전제로 활용
- 어촌의 가치 증진 및 발전 동력
- 지속가능한 어구어법으로 계승

<내발적 보존>

- 주민·지자체 주도의 활용과 관리
- 주민-전문가-행정의 공동가치 창조
- 어촌지역 랜드마크로 활용

<어업유산의 다원적 자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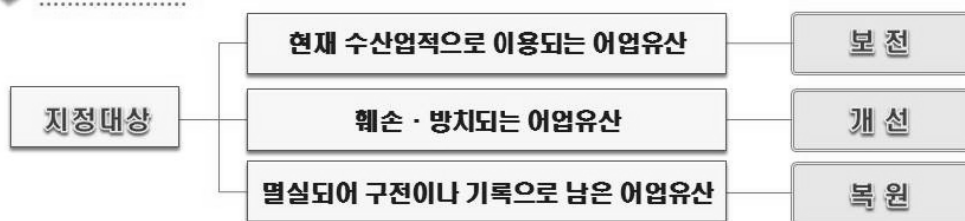
- 경제적·사회적·공동체적 가치 제고
- 어업유산 활용을 통한 특화 발전
- 지역활성화의 중심자원으로 활용



IV 사업 추진 전략

IV. 사업추진 전략

기본전략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2014)	2단계(2015)	3단계(2016)	4단계(2017)
사업 준비기	시범사업 추진	사업 정착	사업 확대
신규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화	근거법령 마련, 어업유산 공모 어업유산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시범사업 1개소 추진	시범사업 2개소 추진 어업유산 브랜드화 추진방안 연구	시범사업 3개소 추진 평가를 통한 환류 주변사업과 연계화 방안 마련



V 향후 사업 추진 계획

V. 향후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 근거법령 마련

-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 를 도입,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5. 2월 中)

● 어업유산 발굴 · 지정

-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어업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지정추진
- * 전문가풀 구성 및 (가칭)어업유산 심의위원회 운영

● 어업유산 보전을 위한 DB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 * 유산의 역사 특성에 대한 기록 및 자료 관리
- * 지정 후 유산 관리 및 활용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 지정현황 홈페이지 게재, 정기보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 내실화 추진
- * 명품 어업 유산 발굴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지정 추진



V. 향후 사업추진 계획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2015년 사업추진 계획

- 어업유산자원 발굴 및 정비
 - 어촌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을 1개소 선정
- 어업유산자원 관리·지원·홍보
 - 객관적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회의, 유산 지정기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어업유산의 관리·지원 및 워크숍, 홍보자료 발간 등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VI 기대 효과



VI. 기대효과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 어업 유산자원 보전 · 관리사업을 통한 전통 어업 자원의 보전

- * 정책사업 지원을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도모
- * 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어촌개발 접근

● 세계 농어업유산 등재를 통한 브랜드 형성 및 활용도 제고

- * 어촌마을에 산재하는 귀중한 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 재조명
- * 어촌의 새로운 관광 자원화 및 지역 관광활성화 도모

● 도시민 및 청소년 대상 소통 · 교육 기회 제공

- * 역사적 · 경험적 산물인 어업유산을 통해 어촌의 발자취 체험 · 학습 기회 제공
- * 어촌 · 어업유산과 어촌지역 내 관광자원의 융합으로 어촌방문 수요 창출 및 도시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감사합니다



어업유산 제도 정책방향

박 준 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1. 추진배경

□ 최근, 농산어촌 지역(공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등장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 도입·운영
 - * 현재 인정지역은 남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 등 10개 지역으로, 최근 일본의 사토야마(里山)지역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11.6월)
 - ☞ 붙임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참고1) 및 현황(참고2) 참조
- EU는 **유럽농촌문화유산가이드(European Rural Heritage Guide)**를 제정, 농어·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하는 개발계획 중요성과 원리 규정
 - * 2003년 EU회원국의 지역개발 관련부처 장관회의(CEMAT)에서 채택
- **일본**은 어촌주민의 일상생활, 생업 및 지역 고유 풍토에 의해서 형성된 전형적이고 독특한 경관을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보호
- 영국·독일 등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운영, 일본은 지자체별로 자연경관 보전조례를 마련·운영



□ 어업 유산을 보전·관리하여 후대에 물려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사업 필요

- 어촌·어업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어촌·어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체계 마련 및 사업 추진 필요

2. 어촌·어업유산 지정제도

□ 어촌·어업유산 개념

- 어업인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60년 이상) 동안 형성·진화해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전통적 어업활동 경험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어촌의 경관, 어업적 활동 등 모든 산물

□ 제도 목적

- 어촌 및 어업유산을 지정·보존하고 이를 어촌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제고에 기여

□ 지정·관리대상

- 전통적 어업활동 경험(생산기술, 바다이용, 갯벌관리 등)의 산물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범위의 경관 등 모든 산물
- * 경관, 시설물의 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정 시 마을과의 연계성 고려하되, 초기에는 어업 유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어촌 및 농어촌으로 확대



	시스템(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비고
어업 유산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기능 - 경관, 갯벌, 바다 특성 - 식량과 생계안전, 공동체의 지식체계·기술	어업, 수산활동 및 갯벌이용과 관련된 경관 및 시설물, 장소	1차 시행
어촌 유산	-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식 - 고유 부존자원의 활용 및 기술	주민 삶과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적·지방적인 마을공간과 공간요소	향후 추진

○ 대상 분류(예시)

분류	내 용
어업·어항	- 전통적 어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등)
복합	- 서로 다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섬과 갯벌, 섬과 섬 연결도로) - 어업, 농업, 임업, 축산업의 각 경관이 조합을 이룬 경관

* 전통적 어업 활동 : 역사적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서 현재의 생활에 의미와 효용이 있는 어업 생산 활동

3. 어업유산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 어업유산 관리현황

- 해양수산부는 전통 어업 및 어촌 자원을 발굴·보존·전승하기 위해 '12년부터 어업유산(遺産)제도 도입
 - '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업과 어업의 주무부처를 분리하여 수산, 어촌 개발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독자적 수행
- 어촌·어업유산은 어촌, 바다, 갯벌, 강, 어업, 수산물, 생태계경관과 관련된 산물로 농업유산과는 차별성·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 어업유산 관련하여 과거 지정심의 대상은 6곳이나, 현재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실정



- * 어업유산(예시) : 독살(충남 태안), 갯벌·염전(전남 신안), 개매기 어장(전남 장흥), 갯샘(전남 진도), 죽방렴(경남 남해), 돌 염전·해녀(제주) 등

□ 어업유산 관리 개선방안

- 어촌에는 농업과 차별화 된 어업활동과 관련한 오랜 **전통**과 **유산**이 산재하므로 이의 발굴과 보전·전승에 필요한 체계적 제도 도입 필요
 - 보전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도입 필요
- *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2곳(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밭)으로 농업에 한정됨에 따라 어업유산관리제도 시행이 시급함
- 이러한 과제 해결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어촌 자원**에 대한 재인식과 관리 방향 전환 필요

현재(As is)

〈어업유산 방치〉

- 어업유산의 가치 저평가
- 어업 형태의 변화에 따른 멸실
- 과거의 비효율적 유물로 취급

〈외생적 보존〉

-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
-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활용

〈어업유산 정책의 부재〉

- 수산업 위주의 양적 성장 정책
- 지역의 어업유산 발굴정책 부재

미래(To be)

〈어업유산의 활용이 최선의 보존〉

- 어업유산 보존을 전제로 활용
- 어촌의 가치 증진 및 발전 동력
- 지속가능한 어구어법으로 계승

〈내발적 보존〉

- 주민·지자체 주도의 활용과 관리
- 주민-전문가-행정의 공동가치창조
- 어촌지역 랜드마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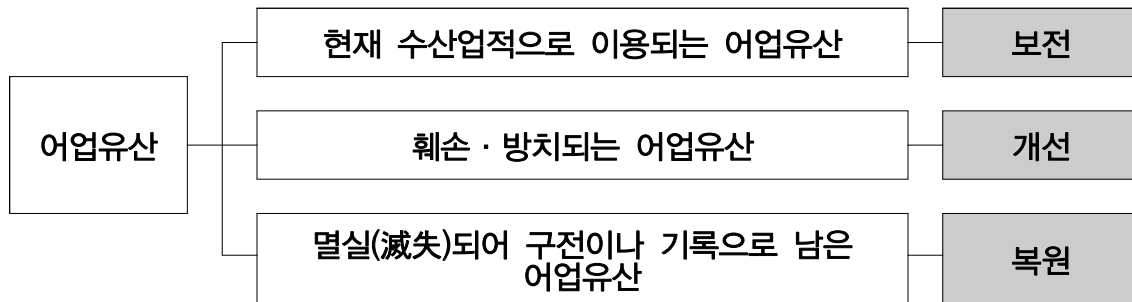
〈어업유산의 다원적 자원 활용〉

- 경제적·사회적·공동체적 가치 제고
- 어업유산 활용을 통한 특화 발전
- 지역 활성화의 중심자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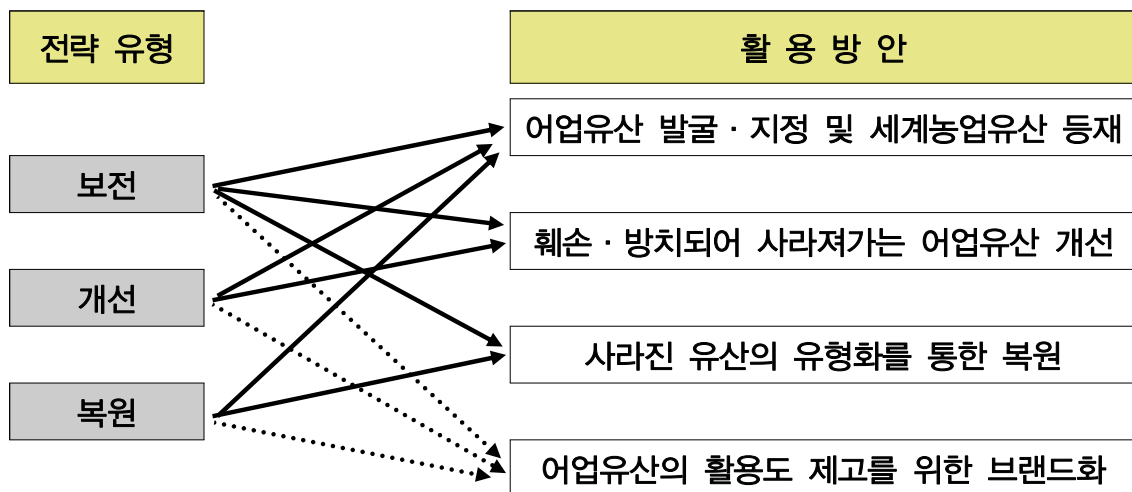


4. 사업추진전략

□ 기본전략



□ 전략 및 활용방안



핵심 활용 방안 : →

선택적 활용 방안 :▶

□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2014)	2단계 (2015)	3단계 (2016)	4단계 (2017)
사업 준비기	시범사업 추진	사업 정착	사업 확대
- 지정제도 사업화 방안 마련 - 신규사업 예산 확보 - 근거법령 안 마련	- 근거법령 마련 - 어업유산 공모 - 시범사업 1개소 추진	- 시범사업 2개소 추진 - 어업유산 브랜드화 추진방안 연구	- 시범사업 3개소 추진 - 평가를 통한 환류 - 주변사업과 연계화 방안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근거법령 마련

- 어촌,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해녀, 독살 등 우리나라 어촌지역의 대표적인 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5.2월 中)

□ 어업유산 발굴지정

-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지정추진
- * 전통어업, 지역개발, 어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문가풀 구성, (가칭)어업 유산 심의위원회 운영

□ 어업유산 보존·활용 등을 위한 DB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 어업유산의 역사, 특성 등에 대한 기록 및 자료 관리
- 지정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정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과정에 환류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 어업유산 지정현황을 해수부·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어업유산 표지판 표준양식 마련, 정기보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 내실화 및 어업유산 활용도 제고
- 우리나라 대표 명품 어업유산을 발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지정 추진으로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관광상품으로 부각·활용



□ 2015년도 사업추진 계획(안)

- 어업 유산자원 발굴·정비 : 140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 어촌의 다원적 자원 및 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을 1개소 선정하여 체계적인 유산자원 복원 등 관리 지원
- 어업 유산자원 관리·지원·홍보 : 135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어업유산자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위촉, 체계적인 관리·활용 등을 위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발간 등

- 어업 유산자원 발굴 및 정비 대상마을 선정 (지자체 공모) 절차
 - 공모신청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최종 대상지 선정



○ 세부 추진일정

- 대상지 공모계획 수립·시달 : 2015. 2월
- 대상지 공모접수 : 2015. 3월
- 서면 및 현장평가 : 2015. 4월(최종 대상지 선정)
-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 : 2015. 5월
-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교육 : 2015. 6월
- 사업시행(지자체) : 2015. 7월~
- 사업추진 관련 자문 및 모니터링 : 2015. 7월~12월



6. 기대 효과

□ 어업 유산자원 보전·관리사업을 통한 전통 어업 자원의 보전

- 정책사업 지원을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도모
- 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어촌개발 접근

□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통한 브랜드 형성 및 활용도 제고

- 어촌마을에 산재하는 귀중한 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
- 어촌의 새로운 관광 자원화 및 지역 관광활성화 도모

□ 도시민 및 청소년 대상 소통·교육 기회 제공

-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어촌지역의 경험적 산물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의 발자취 체험·학습 기회 제공
- 어촌·어업유산과 어촌지역 내 관광자원의 융합으로 어촌방문 수요 창출 및 도시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참고 1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FAO 주관)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GIAHS)

□ 창설년도 : 2002년

□ 주관기관 : 유엔식량농업기관(FAO, 본부: 이탈리아·로마)

□ 개념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진화되어온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용시스템과 경관

□ 목적

-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되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

□ 인정지역 :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10개지역('11년 현재)

□ 인정절차

- ① 국가추천을 받아 입후보지 등록신청(FAO본부) → ② 현지답사 및 서류심사(FAO본부) → ③인정(GIAHS 심사)

* GIAHS 인정심사 심의회는 2년에 한번 개최

□ 인정기준

- 식량·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사회제도·문화습관, 경관이 수려한 토지이용, 특수한 수자원관리 등

〈세부 인정 기준〉

구분	기준	내용
I. 시스템의 고유특성 (systems criteria)	1. 현저한 특징 (outstanding characteristics)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 식량안전과 생계유지 - 사회조직과 문화 - 지식체계와 및 농가 단위의 기술 -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와 용역
	2. 지속성의 역사 (proved history of sustainability)	- 경제적 활력 및 지속가능성 - 적응적 능력 - 인간 생태적 지속가능성
	3. 세계적 중요성 (global significance)	- 공공성 - 부가가치
II. 정황성 (contextual criteria)	1. 대표성 (representation)	-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 대표성 및 영향력 - 전시효과 - 현저한 대표성
	2. 외부의 위협 (external threat)	- 외부적 위협의 존재
	3. 정책 및 개발적용성 (policy and develop- ment relevance)	- 정책의 적용가능성
III. 프로젝트 수행성 (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	1. 프로젝트 통합성 (project integration)	- 파트너 쉽
	2. 공동 펀드의 능력 (co-finance potential)	- 공동 펀드 가능성
	3. 프로젝트 접근성 (project approach)	- 국제협약 - 프로그램적 접근 - 생태계적 접근 - 지역사회의 권한 - 분권화

**참고 2****세계 중요 농어업유산(GIAHS) 현황**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현황 : 14개국 총 31개 유산 등재

○ FAO GIAHS는 '12년 말 현재 19개의 지역(Pilot Systems)으로 지정, '13년 5월 말 6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어 총 25개 지역

* 다수의 후보지역(Candidate Systems)이 등재 준비 중에 있음

GIAHS의 25개 대상지역 (Pilot Systems)

연번	국가	지역	비고
1	아프리카	Ghout 시스템, 알제리(Ghout System, Algeria)	
2		Oldonyonokie/Olkeri 마사이 목축업 문화 유산, 케냐(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Site, Kenya)	
3		아틀라스 산맥의 오아시스 시스템, 모로코(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Morocco)	
4		Engaresero 마사이 목축업 문화 유산 지역, 탄자니아(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Tanzania)	
5		Shimbwe Juu Kihamba 농업 임업 문화 유산, 탄자니아(Shimbw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Tanzania)	
6		가프 오아시스, 튀니지(Gafsa Oases, Tunisia)	
7	중남미	칠로 농업, 칠레(Chiloé Agriculture, Chile)	
8		안데스 농업, 페루(Andean Agriculture, Peru)	
9	동남아	Aohan 드라이랜드 농업 시스템, 중국(Aohan Dryland Farming System, China)	
10		동의 쌀 물고기 오리 체계, 중국(Dong's Rice Fish Duck System, China)	
11		하니 라이스 테라스, 중국(Hani Rice Terraces, China)	
12		Pu'er의 전통 차 Agrosystem, 중국(Pu' 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China)	
13		벼 · 물고기 문화, 중국(Rice-fish culture, China)	
14		만년 전통 쌀 문화, 중국(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China)	15
15		회계산의 오래 된 중국비자, 중국(Kuaijishan Ancient Chinese Torreya, China)	'13.5 지정
16		선화의 포도재배와 도시농업유산, 중국(Xuanhua Traditional Vineyards System, China)	'13.5 지정
17		노토의 사토야마와 사토우미, 일본(Noto's Satoyama and Satoumi, Japan)	
18		일본 따오기와 조화로운 사도의 사토야마, 일본(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Japan)	19
19		아소 초원과 지속적 농업, 일본(Managing Aso Grassland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Japan)	'13.5 지정



연 번	국가	지 역	비고
20		시즈오카의 차 농법, 일본(Traditional tea-grass integrated system in Shizuoka, Japan)	'13.5 지정
21		쿠니사키반도 우사 통합 농림어업 시스템, 일본(Kunisaki Peninsula Usa 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 Japan)	'13.5 지정
22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 Koraput, 인도(Traditional Agriculture Systems, Koraput, India)	
23		카슈미르의 사프란 유산, 인도(Saffron Heritage of Kashmir, India)	
24		가나도의 해수면 농업시스템(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 India)	'13.5 지정
25		푸가 오 라이스 테라스, 필리핀(Ifugao Rice Terraces, Philippines)	

- 2014년 4월 FAO 본부에서 개최된 GIAHS 과학 운영위원회에서 6개 전통유산을 추가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14개국 31개로 증가

* 한국(2)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중국(3) Fuxhou 재스민 차문화, Jiaxian 전통 대추나무 정원, Xingghua Duotian 농업, 이란(1) Qanal 관개시스템

참고 3

농어업 자원 현황 및 지정심의 대상

□ 어업 자원 발굴 리스트

어업 자원명	지역	어업 자원명	지역
테우(전통배)	제주	개매기 어장	장흥
도대불(옛등대)	제주	해신장(돈짓당)	제주
불턱(해녀모닥불)	제주	죽방렴	남해
원담	제주	영광 염전	영광
광천토굴	홍성	태평염전	영광
독살어업	태안	곰소염전	부안
독살어업(원담)	제주	구엄 돌염전	제주
물건리 방조어부림	남해	장하리 갯벌	강화
인제 용대리 황태덕장	인제	보령 갯벌	보령
나잠어업	제주	순천만 갯벌	순천
신안염전	신안	신안군 갯벌	신안
거금도 해태 역사관(김생산)	고흥	한산도 염개갯벌	통영



□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제1차 위원회, '13.1.10)

분야	지 역	유산자원	특 징	비고
농업 유산	충북 제천	의림지	▶ 삼한시대에 축조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알려 주는 저수지(560ha)	
"	전남 담양	대나무밭	▶ 풍해·홍수해 방지 등을 위해 조성한 집단 대 나무 밭(1,797ha) 및 대나무 활용 죽세공품	
"	전남 보성	녹차 밭	▶ 경사지에 형성된 경관이 뛰어난 계단식 녹차 밭(1,063ha)	
"	전남 완도	구들장 논	▶ 우리나라 전통온돌인 구들장 방식을 사용하여 축조된 계단식 논(6.5ha)	지정
"	경북 상주	공검지	▶ 습지보호 및 자연생태환경 유지의 보고인 삼 한시대에 축조한 저수지 (24.6ha)	
"	경남 하동	녹차 시배지 최고 차나무	▶ 우리나라 최초(828년)로 차나무를 심은 차 나 무 시배지 및 최고령(1,000년) 차나무	
"	제주	돌담 밭	▶ 경계·방풍·우마 침입방지 역할을 위하여 밭 주위에 축조한 현무암 돌담(22,108km)	지정
어업 유산	충남 태안	독살	▶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전 통어법인 독살의 집단지(9개소)	
"	전남 신안	갯벌, 염전	▶ 전국 갯벌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섬 갯벌 (450ha)과 국내최초 천일염 생산 염전(41.6ha)	
"	전남 장흥	개매기 어장	▶ 조수간만 차 이용 전통 어장(1,000ha) 및 보 호대상 해양생물 '잘피' 집단 서식지	
"	경남 남해	죽방렴	▶ 대나무 및 말목 등을 사용, 조류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원시어업(23개소)	
"	제주	돌 염전	▶ 해안 암반위에서 태양열에 의해 해수를 증발 시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2,640m ²)	
"	제주	해녀 유산	▶ 맨손으로 바다 속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와 관련하여 형성된 자원(원담, 불턱, 해신장 등)	

* 시군에서 신청한 64건의 유산자원 중 전문가의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13건을 선별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함